

교황청 경신성사성

# 대중 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 원칙과 지침

2001. 12. 17.

---

## 차 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교황청 경신성사성 정기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발췌문 (2001. 9. 21.)	35
교황청 경신성사성 교령 (Prot. N. 1532/00/L, 2001. 12. 17.)	38

## 서 론

성격과 구조	42
이 지도서의 대상자들	43
용 어	44
신심 행위	45
신심 실천	45
대중 신심	46
대중 종교심	47
몇 가지 원칙들	47
전례의 우위성	47
평가와 쇄신	48
전례와의 구별과 조화	49
대중 신심의 언어	50
몸 짓	50
기도서와 기도문	50
노래와 음악	50
성 상	51
거룩한 장소	52
거룩한 시간	52
책임과 권한	53

## 제 1 부 새로운 경향 역사와 교도권과 신학

### 제 1 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전례와 대중 신심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례와 대중 신심	57
고대 그리스도교	57
중 세	62
근 대	66
현 대	74
전례와 대중 신심: 오늘날의 문제들	77
역사적인 고찰: 불균형의 원인들	78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79
교육의 중요성	84

### 제 2 장 교회의 교도권에서 본 전례와 대중 신심

대중 신심의 가치	86
빛나간 대중 신심	89
대중 신심의 주체	90
신심 행위	92
전례와 신심 행위	93
신심 행위의 쇄신을 위한 일반 원칙들	94

## 제 3 장

## 대중 신심의 진단과 애신을 위한 신학적 원칙들

에베 생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맺는 친교 .....	95
교회: 에베 공동체 .....	100
보편 사제직과 대중 신심 .....	103
하느님 말씀과 대중 신심 .....	103
대중 신심과 사적 계시 .....	105
토착화와 대중 신심 .....	106

## 제 2 부

## 대중 신심과 전례의 조화를 위한 지침

들어가는 말 .....	111
--------------	-----

## 제 4 장

## 전례 주년과 대중 신심

주 일 .....	113
대림 시기 .....	114
대림환 .....	115
대림 행렬 .....	116
동한기 .....	116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대림 시기 .....	117
예수 성탄 대축일 9일 기도 .....	118
구 유 .....	119
대중 신심과 대림 정신 .....	119
성탄 시기 .....	120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	121
성가정 축일 .....	123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 .....	124
12월 31일 .....	12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26
주님 공현 대축일 .....	128
주님 세례 축일 .....	129
주님 봉헌 축일 .....	129
사순 시기 .....	131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공경 .....	133
주님의 수난기 독서 .....	135
십자가의 길(Via Crucis) .....	136
십자가의 길은 사순 시기에 특히 적합한 신심 행위이다 .....	138
어머니의 길(Via Matris) .....	139
성주간 .....	140
성지 주일 .....	141
종려나무와 올리브 나뭇가지와 그 외 나뭇가지들 .....	141
파스카 성삼일 .....	142
성목요일 .....	142
수난 감실 조배 .....	142
성금요일 .....	143
성금요일 행렬 .....	143
수난 연극 .....	145
고통의 성모님 .....	145
성토요일 .....	146
성모 시간경(Ora della Madre) .....	147
예수 부활 대축일 .....	147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머니를 만나심 .....	148
식탁의 축복 .....	148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를 방문하심 .....	149
부활 시기 .....	149
연례 가정 축복 .....	149
빛의 길(Via Lucis) .....	150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 .....	151
성령 강림 대축일 전 9일 기도 .....	152
성령 강림 .....	152
성령 강림 대축일 .....	152
연증 시기 .....	154
삼위일체 대축일 .....	154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156
성체 흠숭 .....	159
예수 성심 .....	161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	166
지극히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 .....	167
성모 승천 .....	172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	173

### 제 5 장

####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

몇 가지 원칙들 .....	175
성모 신심 행위의 시기 .....	178
축일 거행 .....	178
토요일 .....	178
3일 기도, 7일 기도, 성모 9일 기도 .....	179
성모 성월 .....	180
교도권이 권고하는 신심 행위들 .....	182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 듣기 .....	182
삼중기도 .....	183
부활 삼중기도 .....	184
묵주기도 .....	185
성모 호칭 기도 .....	187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과 의탁 .....	189
갈색 성의와 그 밖의 성의들 .....	191

메 달 .....	192
아카티스토스(Akathistos) 성가 .....	193

### 제 6 장

#### 성인과 복자 공경

원칙들 .....	195
거룩한 천사들 .....	199
요셉 성인 .....	204
성 요한 세례자 .....	207
성인과 복자 공경 .....	209
성인 기념 .....	209
축일들 .....	212
성찬례 거행 .....	215
성인 호칭 기도 .....	216
성인들의 유해 .....	217
성 상 .....	219
행 렬 .....	223

### 제 7 장

#### 죽은 이들을 위한 대리 기도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 .....	227
대리 기도의 의미 .....	229
그리스도교 장례 예식 .....	231
다른 대리 기도 .....	233
대중 신심에서 죽은 이들의 기념 .....	234

### 제 8 장

#### 순례지와 순례

순례지 .....	239
-----------	-----

원 칙 .....	239
교회법적 인정 .....	240
경배 예식의 장소인 순례지 .....	241
바람직한 전례 거행 .....	242
고해성사 거행 .....	242
성찬례 거행 .....	243
병자성사 .....	244
다른 성사들의 거행 .....	245
성무일도의 거행 .....	245
준성사 .....	246
복음화의 장소인 순례지 .....	247
자선 활동의 중심지인 순례지 .....	248
문화의 중심지인 순례지 .....	249
순례지와 교회 일치 운동 .....	250
순례 .....	252
성서의 순례 .....	253
그리스도인의 순례 .....	254
순례의 영성 .....	257
순례 여정 .....	260
결 론 .....	26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교황청 경신성사성 정기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발췌문  
(2001년 9월 21일)

2. ‘전례 현장’(Sacrosanctum Concilium)이 교회 생활의 정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룩한 전례는 단순한 미적 실체로 축소되거나, 단지 교육적 목적이나 교회 일치를 위한 목적의 도구로만 여겨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신비의 거행은 무엇보다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찬미의 행위이며, 하느님께서 직접 바라신 것입니다. 이미 와 있지만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비로소 결정적으로 도래할 하느님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고서는 자신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은, 거룩한 전례의 거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하느님 대전에 나아갑니다. 전례와 삶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실체입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전례는 공허한 것이며 분명히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3. 전례 거행은 그 본질에 맞게, 거룩한 것에 대한 심오한 의식을 특징으로 하여야 하는 종교적 덕행입니다. 전례 거행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느님과 특별히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례 거행에서 요청되는 것은, 존엄하신 하느님 앞에서 있음을 의식하는 데에서 솟아나는 경외심과 경건함으로 가득 찬 마음가짐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불꽃이 이는 떨기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바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태도도 바로 이러한 경외심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느님의 백성은 사제와 부제들에게서, 말이나 설명이 없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 주는 존엄으로 가득 찬 태도를 요구합니다. 교황 비오 5세 성인께서 반포하신 『로마 미사 전례서』(*Missale Romanum*)에는 여러 동방 교회 전례서처럼 아름다운 기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제는 이 기도들을 통하여 거룩한 신비 앞에서 깊은 경외감과 겸손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기도들이야말로 모든 전례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집전하는 전례 거행은 신앙 안에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이 거행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골산에서 하느님께 단 한 번 바치신 살아 있고 깨끗하고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리고자 거행하는 모든 거룩한 미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경신성사성이 주교님들과 더불어 교회의 전례 생활을 증진하고 심화하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소중한 작업이 전례 거행을 더욱 품위 있고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4. 여러분은 적절한 지도서 준비를 위하여, 대중 신심을 정기 총회의 핵심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대중 신심은 생생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자들의 감성을 표현하고 고무하면서 어느 특정 환경의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확산되는 참된 형태의 대중 신심은 신앙에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 신심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대중 신심의 올바른 표현은 거룩한 전례의 중심성과 대립하지 않으며, 이를 자연스러운 종교적 표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신앙에 더욱 고무되어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5. 신앙의 이 두 가지 표현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확고한 몇몇 원칙들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례가 교회 생활의 중심이며 그 어떠한 신심 표현도 전례를 대신하거나 전례와 똑같이 여겨질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대중 신심의 완성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 거행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 신심은 이상적으로는 전례 거행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적절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설명되어야 합니다.

대중 신심의 형태는 가끔 가톨릭 교리와 맞지 않는 요소들로 오염될 때도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명백한 조치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아니라면, 그러한 경우 책임자들을 만나거나 적절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권한은 특히 그러한 대중 신심의 표현들과 관련된 지역의 주교들, 곧 교구장 주교들의 몫입니다. 이 경우에 사목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사목 지침을 마련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순된 입장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이상, 주교들은 대중 신심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 교황청 경신성사성

Prot. N. 1532 / 00/L

(2001년 12월 17일)

## 교 령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전례 헌장, 10항)라고 전례의 우위성을 주장하면서도, “그렇지만 영성 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같은 곳, 12항)고 상기시킨다. 신자들의 영성 생활은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의 신심 행위”, 특히 사도좌에서 권고하고 교구장 주교의 명령이나 승인에 따라 개별 교회에서 실천하는 신심 행위에서도 자양분을 얻는다. 공의회 교부들은 이러한 예배 표현들이 교회의 법률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이러한 신심 행위의 신학적 사목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거룩한 전례는 그 본질상 이러한 신심 행위를 훨씬 앞서 가는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들은.....백성을 전례로 이끌어들이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같은 곳, 13항).

그리스도인 백성의 신심 행위에 대한 이러한 권위 있는 가르침과 교회 교도권의 여러 다른 선언들에 비추어, 또 최근에 나타난 사목 사례들을 바탕으로, 2001년 9월 26-28일까지 열렸던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정기 총회는 이 지도서를 승인하였다. 이 지도서는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그러한 관계를 조정하는 원칙들을 설명하며, 각 개별 교회에서

고유한 전통에 따라 그러한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침들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 신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목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대중 신심을 장려하는 것은 특별히 주교들의 임무이다. 대중 신심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백성의 신앙을 보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였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 「대중 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 원칙과 지침」의 발표를 승인받아(2001년 12월 14일자 국무원 서한, Prot. N. 497.514), 이 지도서를 펴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목자들과 신자들이 모두 이 지도서에서 격려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교황청 경신성사성 사무처에서

2001년 12월 17일

장관 호르헤 아르투로 메디나 에스테베스 추기경

차관 프란체스코 피오 탐부리노 대주교

## 서 론

1.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sup>1)</sup>인 전례를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그리스도인 백성의 다른 신심 표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sup>2)</sup>

공의회가 쇄신 이후, 그리스도인 대중 신심은 나라와 지역 전통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중 신심에 대한 상반된 태도들을 지적할 수 있다. 곧, 과거의 대중 신심 표현들을 명백하고 성급하게 버리고 결국 그 빈자리를 쉽게 채우지 못하는가 하면, 성서의 참된 계시에서 동떨어지고 성사들의 경륜과 어긋나는 불완전하거나 그릇된 신심 형태에 열중하기도 하고, 이른바 신앙의 ‘순수성’을 내세워 일반 신자들의 신심을 근거 없는 말로 비판하는가 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기의 신자들이 지녔던 깊고 성숙한 신앙심을 표현하는 대중 신심의 부요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모호한 말을 쓰거나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는 대중 신심을 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가 하면, 실용적인 기술 문화와 경제 공리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반작용으로 대중 종교심이 새로운 활기를 띠기도 하고, 세속주의

이념들이 등장하고 대중 신심에 적대적인 ‘종파들’의 공격적인 활동이 일어나면서 대중 신심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신자들의 전례 생활을 발전시키고 대중 신심을 활용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교들과 신부들, 부제들, 사목 협력자들, 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례에 관한 현장은 전례와 신심 행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sup>3)</sup> 대중 신심에 관한 문제는 사도좌와<sup>4)</sup> 각국 주교회의에서<sup>5)</sup> 여러 차례에 걸쳐 매우 폭넓게 다루어 왔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황 교서 「25주년」(*Vicesimus Quintus Annus*)에서 전례의 쇄신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시고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대중 신심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이나 경멸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대중 신심은 풍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하느님 앞에 인간의 깊은 종교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종교심도 끊임없이 복음화되

3. 전례 현장, 13항 참조.

4. 교황청 예부성 성,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성체 신비」(*Eucharisticum Mysterium*), 1967. 4. 25., 58-67항; 바오로 6세,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Mariæ Cultus*), 1974. 2. 2., 24-58항;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1975. 12. 8., 48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현대의 교리교육」(*Catechesi Tradendæ*), 1979. 10. 16., 54항;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 11. 22., 59-62항; 교황청 성직자성, 「교리교육 총지침」(*General Directory on Catechesis*), 1997. 8. 15., 195-196항 참조.

5. 예를 들어, 제3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푸에블라 문헌」(*Documento de Puebla*), 444-469, 910-915, 935-937, 959-963; 에스파냐 주교회의 전례주교위원회 사목 문서 *Evangelización y Renovación de la Piedad Popular*, Madrid, 1987; Secretariado Nacional de Liturgia, *Liturgia y Piedad Popular*, Directorio Liturgico-Pastoral, Madrid, 1989;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Documento de Sancto Domingo*, 36. 39 53 참조.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록한 전례에 관한 현장 「기록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0항.

2. 같은 곳, 12, 13항 참조.

어 그것이 지니고 있는 신앙심이 세련되고 올바른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백성의 신심 수련과 그 밖의 신심 행사는 전례를 대신하거나 혼합되지 않는 한 환영과 추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통적이고 사목적인 전례는 백성의 신심을 정화하여 백성들이 바치는 봉헌물로 받아들여 전례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 풍요로움을 계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sup>6)</sup>

3. 경신성사성은 전례 외에도, “신자들의 기도와 신심 행위가 교회의 규범에 온전히 합치되며 존경심으로 장려되도록”<sup>7)</sup> 할 주교들의 임무를 도와주고자 이 지도서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지도서는 전반적으로 전례와 대중 신심의 여러 가지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고, 몇 가지 원칙들을 재확인하며, 그 원칙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침들을 규정한다.

## 성격과 구조

4. 이 지도서는 제1부와 제2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새로운 경향’을 제목으로 하여, 전례와 대중 신심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한다. 제1부는 오랜 역사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제1장). 교회 친교와 효과적인 사목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교도권의 가르침들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제2장). 끝으로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접근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신학적 원칙들을 설명한다

(제3장). 전례와 대중 신심이 참되고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전례 조건들을 지혜롭고도 실질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반대로 그러한 전례 조건들을 간과한다면, 둘 모두에게 해로운 무지와 파괴적인 혼동과 모순된 논쟁만을 낳을 뿐이다.

제2부는 지침들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실제적인 안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전 세계의 특정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대중 신심의 관행이나 행위를 제2부에 전부 열거해 놓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한 대중 신심 행위나 표현들을 언급하였다 해서 그러한 신심을 아직 실천하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권유는 아니다. 제2부의 내용은 전례 주년(제4장), 교회가 구세주의 어머니께 드리는 특별한 공경(제5장),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과 복자들에 대한 신심(제6장), 죽은 이들을 위한 대리 기도(제7장), 순례지와 관련된 대중 신심의 사례들과 순례(제8장)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도서의 목적은 지침들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남용이나 일탈을 막는 것이다. 지도서의 논조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도서는 지침들에서 여러 가지 대중 신심 행위에 관하여 짧막하게 역사적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심과 결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심 행위를 기록하는 한편, 그 신학적 토대를 밝히고, 시대와 장소, 언어, 그 밖의 요인들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전례와 조화를 꾀한다.

## 이 지도서의 대상자들

5. 이 지도서의 실제적인 제안들은 오로지 라틴 교회와 주로 로마 예법을 위한 것들로서, 우선적으로 교구장 주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구장 주교들의 직무는 교구의 예배 공동체를 관할하고, 전례 생활을 촉진하며, 다른 예배 형태들을 전례와 조

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25주년」(*Vicesimus Quintus Annus*), 1988.12.4., 18항.

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6.28., 제70조.

화시키는 것이다.<sup>8)</sup> 이 지도서의 제안들은 또한 교구장 주교들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인 교구장 대리와 신부, 부제, 특히 순례지의 책임 신부들을 위한 것이며, 또 남녀 봉헌 생활회의 상급장상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대중 신심 표현들이 봉헌 생활회 안에서 생겨나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자들과 계속회원들이 대중 신심의 다양한 표현들과 전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용 어

6. 서방 교회의 역사적 특징은, 그리스도인 백성 사이에 하느님에 대한 소박하고 열정적인 신앙과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령께 드리는 기도, 복되신 동정 성모에 대한 신심, 성인들에 대한 공경, 회개의 의무, 형제적 사랑 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표현들은 전례와 더불어 발전하였다. 경우에 따라 ‘대중 종교심’ 또는 ‘대중 신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데에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sup>9)</sup>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용어와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서에서 사용한 몇몇 용어의 공통된 의미를 약속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1항; 전례 현장, 41항;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5항; 주교성서, *Directorium de Pastoralis Ministerio Episcoporum*,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73, 75-76, 82, 90-91항; 교회법 제835조 1항과 제839조 2항; 「25주년」, 21항 참조.

9. 예를 들어, 「현대의 복음 선교」 48항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그 부요를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한다. “대중의 종교심이라고 하기보다 대중 신심, 곧 대중의 종교라고 기꺼이 부르고자 한다.”; 「현대의 교리교육」 54항은

## 신심 행위

7. 이 지도서에서 ‘신심 행위’라는 표현은 전례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례 정신과 전례 규범, 전례 주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교 신심을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신심 행위는 어느 정도 전례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스도인 백성을 전례로 인도한다.<sup>10)</sup> 몇 가지 신심 행위는 사도좌의 명령이나 교구장 주교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sup>11)</sup> 대부분의 신심 행위는 개별 교회나 수도 가족이 드리는 예배의 전통 유산에 속한다. 신심 행위는 언제나 하느님의 공적 계시와 관련이 있으며 교회를 배경으로 한다. 신심 행위는 흔히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은총과 관계가 있고, 교회의 법률과 부합하며, “승인된 관습이나 예식서에 따라”<sup>12)</sup> 실천된다.

## 신심 실천

8. 이 문서에서는 여러 가지 외적인 행위를 일컬을 때 사용된다(기도와 찬미가, 특별한 시기나 장소와 관련된 행사, 포

“대중 신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교회법 제1234조 1항은 “대중적 신심 형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25주년」에서 “대중 신심”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674-1676항은 “대중 종교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중 신심”(1679항)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1994년 1월 25일자로 발표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넷째 훈령 *Varietates Legitimae*는 45항에서 “대중 신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10. 전례 현장, 13항 참조.

11. 위와 같음.

12. 같은 곳, 13항.

지, 메달, 습관이나 관습 등). 신앙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외적인 행위는 신자들이 거룩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나, 은총의 특권과 그 은총을 나타내는 호칭의 특권을 지니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교회 생활에서 나뉘는 역할을 하는 성인들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sup>13)</sup>

## 대중 신심

9. ‘대중 신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맥락에서, 거룩한 전례보다는 주로 특정 국가나 민족, 그들의 문화에서 비롯된 표현들에서 영감을 받은 개인이나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예배 표현들을 가리킨다.

대중 신심은 마땅히 “하느님 백성의 보화”<sup>14)</sup>로 여겨져야 하며,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신앙은 신앙을 위해서라면 헌신과 영웅적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성, 섭리, 사랑, 현존 등 하느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예리한 감수성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보기 드문 인내심, 일상생활에서 십자가의 의의, 해탈, 귀의심, 신심 등 내적 자세도 볼 수 있다.”<sup>15)</sup>

13. 트리엔트 공의회, 제25회기,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령」(*Decretum de Invocatione, Veneratione, et Reliquiis Sanctorum, et Sacris Imaginibus*), 1563 12 3., 「신앙, 도덕에 관한 선언, 규정, 신경 편람」(*DS*) 1821-1825; 비오 12세,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Mediator Dei*), 「사도와 관보」(*AAS*) 39(1947), 581-582면; 전례 현장, 104항; 교회 현장, 50항 참조.

14. 요한 바오로 2세, 칠레 라세레나에서 한 말씀 전례 강론, 2항,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1(1987),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8, 1078면.

15. 「현대의 복음 선교」, 48항.

## 대중 종교심

10. ‘대중 종교심’은 보편적인 체험을 가리킨다. 민족과 국가, 그들의 집단적 표현의 핵심에는 언제나 종교적 차원이 들어 있다. 모든 민족은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나 자연과 사회, 역사에 대한 개념을 예배 수단들을 통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독특한 통합은 영적 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중 종교심은 언제나 반드시 그리스도교 계시와 관계된 것은 아니다.

## 몇 가지 원칙들

뒤이은 본문에서 좀 더 충분히 전개하고 설명하게 될 다음 원칙들이 이 지도서의 개요라고 할 수 있다.

## 전례의 우위성

11.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시대의 신앙생활은 신자들이 흔히 전례 거행보다도 더 가슴 깊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신심 표현들과 행위들로 유지된다. 사실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sup>16)</sup> 그러므로 전례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공의회의 전례 쇄신은 찬미가와 적극적인 참여, 평신도의 봉사를 통하여 전례 거행에서 신자들의 참여를 증진하고자 한 것이다. 과거의 어떤 시기와 장소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이 전례 행위 자체를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기도 표현들을 낳았다.

16. 전례 현장, 7항.

신자들은 전례야말로 그리스도교의 다른 어떠한 형태의 합법적인 기도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사 행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대중 신심의 여러 가지 표현들은 사실 선택적인 것이다. 이것은 주일 미사 참여를 의무화한 교회의 명령으로 분명하게 입증된다. 그러나 신심 행위는 아무리 가치 있고 널리 퍼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무화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나 개별 신자들이 그것을 의무로 여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전례 기도와 전례 주년이 다른 어떤 형태의 신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인 전례의 탁월성을 배타적으로나 대립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평가와 쇄신

12. 신심 행위가 선택적인 성격의 것이라 해서 결코 그러한 행위를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분야에 요구되는 것은 대중 신심의 많은 부요와 이와 같은 부요의 잠재력, 그것이 고무하는 열심한 그리스도교 생활에 대한 올바른 현명한 평가이다.

복음은 오래 되었거나 새로운 모든 그리스도교 신심의 표현을 평가하는 잣대이다. 신심 행위와 실천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것들을 정화하는 임무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행됨으로써 그것들이 그리스도교 신비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교 전례에 대한 말은 대중 신심에도 해당된다. “그리스도교 전례에는 결코 주술적인 의식이나 미신, 심령술, 복수 또는 성(性)과 관련된 의식 등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sup>17)</sup>

17. 교황청 경신성사성, 전례 현장(37-40항)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넷째 훈령 *Varietates Legitimae*, 48항.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전례의 쇄신은 신심 행위와 신심 실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쇄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대중 신심은 다음과 같은 정신으로 총망하여야 한다. 곧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성서와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교 기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서의 정신이 필요하며, 전례 행위를 통하여 거행되는 신비들을 강조하거나 반영하려면 전례의 정신도 필요하다.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감수성과 전통을 고려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금지에 제한을 받지 않는 교회 일치의 정신이 필요하며, 특정 국가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상징들과 표현들을 보존하는 동시에 무의미한 고풍주의는 피하고, 현대의 감각에 호소하는 말로 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인간학적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쇄신이 성공을 거두려면 교육 의식이 배어 있어야 하며, 언제나 각각의 상황과 시대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전례와의 구별과 조화

13. 예배의 표현에서 신심 행위와 신심 실천의 객관적인 차이가 언제나 분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심 행위의 고유한 양식을 전례 행위와 뒤섞어서는 안 된다. 신심 행위들은 성찬례와 다른 성사들의 거행과 별개의 것이다.

한편 신심 행위와 전례 행위의 언어나 리듬, 절차, 신학적 강조점을 차별화하려면 신심 행위와 전례를 뒤섞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신심 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전례 행위와 경쟁하거나 대립하면 이 역시 해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과 대축일, 전례 시기와 전례일을 언제나 우선시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신심 행위는 고유한 양식과 소박성, 언어를 보존하여야 하며, 신심 행위에 ‘전례 거행’의 형식들을 가미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 대중 신심의 언어

14. 대중 신심의 구두 언어와 몸짓 언어는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신비의 위대함과 더불어 신앙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몸 짓

15. 대중 신심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행위와 몸짓, 상징적인 표현들이 그 특징이다. 성상이나 장소, 유해, 성물 등에 입을 맞추거나 손을 대기, 순례, 행렬, 맨발이나 무릎으로 걷기, 장례, 부복, 메달이나 기장 달기 등……. 자자손손 전해 내려오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식들이다. 이러한 내적인 요소가 없다면, 상징적인 몸짓은 최악의 경우에 무의미한 관습이나 단순한 미신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기도서와 기도문

16. 신심 기도와 기도문은 전례 기도에서 쓰이는 것보다는 덜 엄격한 용어로 작성되었지만, 성서와 전례, 교회 교부들과 교도권의 영감을 받아야 하며, 교회의 신앙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심 실천에 따르는 확정된 공식 기도나 신심 행위와 결부된 여러 행위는 언제나 교구 직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18)</sup>

### 노래와 음악

17. 모든 민족의 영혼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노래는 대

중 신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9)</sup> 전승되는 전통 노래집의 보존은 성서와 교회 정신을 따라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노래를 작곡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민족들의 노래에는 자연스럽게 박수와 율동, 춤이 따른다. 이러한 동작은 내면의 정서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특히 수호 성인 축일과 같은 경우에 그것은 민간 전통에 속한다. 물론 그러한 동작은 공동의 기도를 참되게 표현하는 것이어야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한 지역에서 유행한다 해서 다른 지역에도 장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발적이지 않을 경우에 그러하다.

### 성 상

18. 성상을 사용하는 것은 대중 신심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에서 성상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를 만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상 공경은 가톨릭 신심의 본질 자체에 속한다. 이것은 그 예술적 세습 자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은 여러 성당과 순례지에서 볼 수 있고, 흔히 대중 신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성모님, 성인들의 성상을 전례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원칙들이 적용된다. “성상에 바치는 공경은 그것이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것임”<sup>20)</sup>을 잘 아는 교회는 이러한 원칙들을 전통적으로 주장하고 옹호해 왔다. 교회의 성화상 배치 계획을 세울 때 — 신앙의 진리와 그 위계, 아름다움과 질적인 분

19. 전례 현장, 118항 참조.

20.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성화상에 관한 정의」(Definitio de Sacris Imaginibus), 787.10.23., DS 601. 트리엔트 공의회, 제25회기,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령」, DS 1823-1825 참조.

18. 교회법 제826조 3항 참조.

제에서 —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듯이<sup>21)</sup> 사적이고 개인적인 신심을 위한 성상과 물건에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룩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성화상이 개인적인 취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성당과 경당의 책임자들은 공적인 공경을 위해 전시된 성상들의 품위와 아름다움과 질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자들은 개인들의 사적인 신심에서 만들어진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공동체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sup>22)</sup>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들과 순례지의 책임자들은 신자들이 집에 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거나 목 들레에 늘어뜨리고 다니도록 제작된 성상들이, 하찮은 물건이 되거나 잘못된 용도로 쓰이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 거룩한 장소

19. 성당 외에도 순례지 — 때로는 성당이 아닌 — 는 대중 신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대중 신심은 흔히 특별한 신심 표현과 신심 실천이 특징이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순례이다.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 장소로 명백히 지정된 이러한 거룩한 장소들과 더불어, 집이나 생활 공간, 일터와 같이 흔히 마찬가지로 중요한 곳들도 있다. 경우에 따라, 거리나 광장도 신앙의 표현을 도와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

### 거룩한 시간

20. 낮과 밤, 달과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기는 흔히 대중 신심의 다양한 표현들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기

쁜 일이나 슬픈 일을 상기시켜 주는 특별한 날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축일들’은 여러 가지 신앙 표현들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해당 공동체의 고유한 전통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 책임과 권한

21. 대중 신심의 표현들은 교구 직권자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교구 직권자는 대중 신심의 표현들을 감독하고,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장려하며, 필요할 경우 그러한 표현들을 정화하고 복음화한다. 교구 직권자는 또한 대중 신심의 표현들이 전례를 대신하거나 전례 거행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제한다.<sup>23)</sup> 교구 직권자는 또한 대중 신심 행위와 신심 실천과 관련된 기도와 기도문을 승인한다.<sup>24)</sup> 교구 직권자가 그의 관할 지역에 내리는 조치는 그가 사목하는 개별 교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직자들 평신도든, 또 단체로든 개인으로든,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는 기도나 기도문, 또는 사적인 활동들을 공개적으로 장려할 수 없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70조에서 말한 대로, 경신성사성의 권한은 개별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나 보완 규정을 부과할 경우에 조치를 내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백성의 기도와 신심 행위들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주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21. 전례 헌장, 124-125항 참조.

22. 교회법 제1188조 참조.

23. 「25주년」, 18항; *Varietates Legitimae*, 45항 참조.

24. 교회법 제826조 3항 참조.